

## 기윤실 2008 정책비전 워크숍 회의록

- 일시 : 2007년 12월 14일(금) 18:00-23:00
- 장소 : 덕수교회 영성수련원
- 참석 : 우창록(이사장), 김병연, 김선옥, 김은혜, 노영상, 방선기, 신동식, 황영익
- 배석 : 양세진 사무총장, 조제호, 안금주, 최옥준, 임희연, 윤나래

사회 : 우창록 이사장

### ◆ 방선기 목사 : 사교육의 문제를 성경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자

- 대책은 필요하다.
- 현재 아이들은 학원에 대한 금단현상이 있다. 부모들도 중독되어 있다.
- 대안이 필요하다. 예를 들면 학원세력의 압력이나, 학부모들의 열기를 교육부가 따라가고 있는데, 교육부가 교과과정에 따라 학교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사를 감리감독하도록 하고, 교회에서 공부방 운동이나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.
- 사교육에 대한 원인이 있는데, 이것을 혼자 힘으로 해결해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. 무엇인가 공동체와 커뮤니티가 필요하다.
- 우리가 왜 해야 하는가? 좋은교사와는 어떻게 다른가? 좋은교사는 정책문제, 기윤실은 실천운동으로 가야
- 사교육 문제는 윤리/비윤리 문제는 아니지만, 꼭 필요하다. 신뢰회복 차원에서는 필요하다.
- 극장에서 다 서 있는데, 앉아서 보자고 하는 것이다. 다 같이 앉으면 운동이 되지만, 아니면 손해 보는 운동이 될 것이다. 성과가 생겨야 힘을 받을텐데, 제도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.
- 보완이 필요하다. 가치관 운동도 하고, 좋은교사가 제도를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. 우리에게 전문성이 있는가?
- 교과과정에 따라 수업이 이루어지는 모니터링은 할 수 있지 않겠는가.
- 자녀교육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려운 나라이다.
- 제도적인 개혁을 하더라도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없으면 안된다.
- 크리스천들이 자녀교육 원칙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제안해 볼 수 있지 않은가
- 좋은교사는 정책적 과제운동으로 하고, 기윤실은 윤리실천운동을 하자.
-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각 단체별로 이 사교육 문제를 분업하여 운동해 보는 것은 어떤가
- 선행학습문제를 어떻게...

- 크리스천으로 사교육하시는 분들이 양심선언 같은 것을 통해 풍토들을 바꿔 나갈 수 있지 않을까
- 네트워크 운동으로 갈 것인가? 아니면 교회중심운동으로 갈 것인가?
- 고민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은가?
- 사교육은 윤리, 신뢰와 연관된 문제이다.

◆ 노영상 교수 : 성경적 전인건강과 건강도시 운동

- 교회 밖 사회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지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.
- 산발적으로 건강, 행복도시에 대한 지표들은 많이 있는데, 이것을 종합적으로 모아보고, 성경적으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.
- 지역별 격차가 크지 않고, 작은 나라에서 지역별 도시를 측정한다는 것이 장기적인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일까? 비용도 문제이다.
- 사교육운동은 기윤실에 인력풀이 있지만, 행복도시는 우리안에 인력풀이 있는가?
- 이 운동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은가? 기독교윤리연구소에서부터 이것을 위한 프로젝트 연구를 시작해서 구심점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.
- R&D 아이টে으로 생각하자.

◆ 김병연 교수 : 한국교회의 신뢰도 측정

- 시작부터 대대적으로 하기 보다는 몇 년 누적 될 때부터 대대적으로 알려야 하지 않을까
- 설문조사는 잘못하면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...
- 조사방법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,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문제다.
- 2008년 국민일보가 20주년인데, 국민일보와 매년 공동으로 조사해 보면 좋겠다.
- 2005년 통계청 조사때 자성보다는 의심을 품었던 것처럼 잘 조사해야 한다.

◆ 김선욱 교수 : 국제연대운동

- 2008년 1년 동안 안식년동안 미국에 계신데, 계시는 동안 기윤실 지부를 만들고 오시면 좋겠다.
- 대담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분들을 잘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.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가 문제이다.

◆ 신동식 목사 : 생활영성운동

- 대학생 모임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지 않은가?

- 기윤실이 대학생모임을 시작할때는 우리가 했지만, 현재는 많은 단체가 하고 있다. 우리에게 경쟁력이 있는가?
- 대학생 모임은 경쟁으로 보지 않고, 기윤실 정신을 확산하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좋겠다.
- 회원 중에 대학생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자. 그런 차원에서 일단 먼저 접근해 보자.
-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.

◆ 김은혜 교수 : 창의여성리더십위원회

- 대안가족운동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문화일보가 하는 1사1촌 운동 하는데, 기윤실이 1교회가 1가정을 돌보는 운동이 가능하지 않을까?
- 대안가정운동은 정말 필요한 운동이다. 이 부분에 있어서 기윤실이 매개가 되어 운동을 진행해 볼 수 있겠다.

◆ 황영익 목사 : 기윤실 목회자 리더십 포럼

- 목회자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.
- 목회자 네트워크가 엄청 많은데, 어떤 차이가 있는가?
- 교회신뢰회복 차원에서 교회신뢰에 관심이 있는 목회자의 네트워크로 구성할 예정.
- 목회자 스스로 목회윤리강령을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. 이전에는 교수들이 만들어서 목회자에게 전해주었는데, 아무 의미가 없었다.
- 교회를 자정하는 작은 샘플로써 기능하는 네트워크가 되고자 한다.

◆ 사무처 : 2008년도 주요 사업 브리핑

- 회원총회의 경우 회원들이 직접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.
- 회원총회를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, 방식이나 장소 등도 중요하겠다. 그래서 올해 온 회원들이 다음에도 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. 월마트 주주총회는 총회를 축제로 만들었는데, 기대하며 회원총회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.
- 장소는 숭실대로 하고, 행운권 추첨하자.